

# 주거공간과 여성의 가사노동

차 성 란 \*

Cha, Sung Ran

## 1. 주거공간과 여성

얼마전 한 일간신문에서(동아일보, 96년 9월 7일) 사회적으로 여성의 지위 향상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몇가지 사례들을 싣고 있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부인 동창 모임에 남편이 동반하는 부부모임, 아내가 주장하는 사교생활의 필요성을 인정하여 아내의 친구가 사는 동네로 이사하는 사례, 시댁 대신 처가식구들과 해외여행을 다녀온 신세대 부부 이야기 등을 실으면서 이처럼 가정밖 크고 작은일에 아내의 입김이 세지는 것이 일방적인 부계사회에서 양계사회로 옮겨가는 사회의 큰 흐름이라 분석하였다. 주생활 영역에서도 공간사용에서의 남녀의 성적 불균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음을 선행연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여성학적 관점에서 남녀의 공간사용상의 불평등을 다룬 연구(신혜경, 1991; 이경희, 1996)나 가사노동의 부담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공동체 생활문화에 대한 연구(이연숙, 1995), 주민공유공간에 관한 일련의 연구(최재필, 1995; 임창복, 1995; 유영주, 1995)들이 발표된 바 있다.

한편 한수산씨는<sup>1)</sup> 여성의 지위변화를 주거공간에서 부엌의 변천사에 비추어 설명한 바 있다. 즉 전통한옥에서는 부엌바닥이 낮았고 따라서 부엌과 마루, 방을 연결하는 동선이 굴곡이 많았다. 양옥단독주택에서는 부엌바닥이 다른 주거공간과 높이를 같이 하게 되었고 안방 북쪽과 연결되면서 뒷마당과 연결되어 가사노동이 편리해졌다. 이제 아파트가 보급되면서 부엌이 안방과의 연계성이 낮아지고 거실과 좀 더 밀접한 관련을 가지며 LDK의 주거평면 형태가 보편화되었고 점차 부엌이 주거공간의 중심에 위

한 관련을 가지며 LDK의 주거평면 형태가 보편화되었고 점차 부엌이 주거공간의 중심에 위치하게 되었다. 이처럼 부엌이 주거공간에서 좀 더 중요해지는 것은 부엌공간의 주 사용자인 여성의 지위가 변화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여성의 지위나 평등의 문제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즈음에 본 연구자는 주거공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의문점을 갖게 되었다. 주거공간에서 전형적인 여성공간에 어떤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주거공간에서 여성공간의 변화가 여성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리고 그러한 변화가 여성이 전담하고 있는 가사노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이다.

본 연구자가 이러한 의문점에 대한 답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현대의 주거에서 가사노동, 여성의 노동과 관련하여 성적 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을 고양시키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남성위주의 사회구조적 관점이 아니라 남녀를 포함한 가족원 모두의 질적인 주거생활의 관점에서 주거를 바라다볼 수 있는 눈을 가지므로써 성적으로 좀 더 균형있는 주거의 해결방안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 2. 가사노동과 주거공간

가사노동은 "가족이 가족으로서의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재화와 용역을 생산해내기 위해 개별 가정내에서 수행되는 의도적 활동"(Walker와 Woods, 1976)이라 정의된다. 구체적으로 볼 때 가족원 개인이나 가족이 갖는 공동 욕구의 많은 부분이 가사노동을 통해 충족되므로써 가족이 기능할 수 있다. 근래에는 가사노동을 대신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다양한 상품과 서비스들을 시장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었으나 아

\* 대전대학교 가정관리학과 조교수

1) 소설가 한수산씨의 특강

직 가정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완벽한 대체물이나 제도는 없는 것 같다. 또한 개별가정에서 수행되는 가사노동은 이러한 물질적 부양의 기능 외에도 생활문화를 축적한다는 점에서 문화적 측면의 기여를 간과할 수 없다.

하지만 남성의 노동은 가치있는 노동이라 여겨지며 여성들은 노동을 하는 것으로 여겨지지 않고 가사노동도 분명 생산적인 기능을 하는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여성들 곧 주부들은 그저 집에서 노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인 사회적 인식이다.

그렇다면 왜 가사노동의 혜택을 우리 모두가 누리고 있으면서도 가사노동과 가사노동의 전담자로 여겨지는 여성들에 대한 평가가 부정적인 것일까? 주거공간은 이러한 질문에 대해 많은 실마리를 안고 있다. 가사노동에 대한 가치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는 것은 남녀의 전통적인 성별노동분업에 기인하는데, 남녀의 성별분업은 곧 남성의 노동공간과 여성의 주거공간으로의 성별분리와 상호연관되어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교외주택은 성의 건축물(architecture of gender)이라 여겨진다. 여성에게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 매력적인 성적 대상물, 살림 잘하는 가정의 하인이 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하며, 남성에게는 유능한 생계유지자, 집안일을 잘 돌보는 재주꾼, 자동차 기계구조에 정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배경을 제공한다(Hayden, 1984).

또 여성들에게 가정은 남편과 아이들을 위해 청소하고, 음식준비를 하고 옷을 수선하고 전체적으로 정돈을 하는 등 노동의 장소이다. 그러나 남편과 아이들에게 가정은 일을 끝낸 후의 휴식 장소로 여겨지는 것이 좀 더 일반적이다(McDowell, 1983). 이처럼 주거공간은 남녀의 성별분업이 구체화되는 곳이며 때문에 여성들은 집에 대해 애정과 가사노동의 요구에 따른 불만감이 뒤섞인 감정을 갖게 된다(Darke, 1994).

시장의 임금노동을 기초로 하는 생산은 남성과 여성들에 의해 전문화된 지역에서 집단적으로 수행되는 반면 여성들의 무보수 노동에 기초하는 가정에서의 노동력 재생산은 분산된 장소에서 고립된 상태로 수행된다. 이러한 분담은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관계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도시체계 구조에 구체화되며, 인공적인

도시형태에 표현된다. 이러한 결과는 남성들에게 분명 이득이지만 여성에게는 비효율적이다(McDowell, 1983).

미국의 경우 19세기의 급속한 도시성장은 이미 진행되고 있는, 현물소득이 대부분인 농촌의 생계 경제체계로부터 가정 밖에서의 고용과 임금에 의존하는 생계경제로의 이동을 크게 진전시켰다. 이는 시장지배력에서 가정생활을 분리시키고 특히 중산층의 여성들을 점진적으로 격리시키는에 영향을 주었다. 20세기, 특히 1930년 이후 가정과 직장노동과의 분리는 교외의 주택개발이 급성장함에 따라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났다(McDowell, 1983).

우리나라의 경우도 1960년대 이후 급속한 경제발전이 농촌주민들의 도시로의 이동이나, 직업과 가정생활과의 분리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미국과의 차이점이라면 교외의 주택개발 대신 우리나라의 경우는 아파트의 보급이 주거공간의 여성공간으로서의 이미지를 강화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아파트가 갖는 편리성의 장점은 도시 중산층 주부들을 중심으로 아파트에 대한 선호를 정착시켰다. 아파트 보급률이 늘어나는 것과 즈음해 한강변을 중심으로 세워진 아파트들을 대상으로 이들의 사회적 특성을 살펴보면 고소득, 고학력, 전문직을 가진 가정과의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다. 이는 단지 주택이 아니라 아파트, 특히 강남의 아파트 거주주소를 갖는 것이 사회적 성공의 징후로 여겨지는 우리나라 특유의 주거상황을 만들었다. 결국 이러한 곳에 위치한 아파트에 거주하는 가정의 주부, 다름아닌 여성은 능력있는 남편을 지닌 사람이며 따라서 자신도 성적으로 매력적인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해주게 된 것이다. 때문에 아파트는 좀 더 남성의 노동력 재생산을 위한 장소로서 잘 꾸며진 곳이어야 하고, 여성들은 자신의 성적 매력과 사회적 성공을 표현하기 위해 정돈된 실내, 미적 감각이 표현된 집안꾸미기- 가사노동에 매달리게 되는 것이다.

### 3. 주거공간에서의 여성공간 변화

남녀의 성별분업을 주거공간상의 분리와 연결시킬 때 여성공간(women's space)또는 여성의 영역(women's sphere)이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정확히 여성공간에 대해 정의된 바가

없으나 여성공간, 여성의 영역이라 할 때 넓게는 남성의 사회적 공간, 공적 공간에 대비해 여성의 주거공간, 사적공간을 지칭하기도 하며 좁게는 주거공간내에서 여성의 거주 및 활동공간, 주로 가사노동이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부엌, 다용도실 등의 작업공간을 지칭하는 말로 여겨진다.

최근 이러한 여성공간으로서의 주거공간이 더욱 여성중심적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경험적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

첫째, 주부들이 실내개조나 실내장식에 대한 관심이 매우 커지면서 여성들이 실내분위기를 결정하고, 주거소비와 관련된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되었다.

집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반적으로 남성들은 전통적인 집으로부터의 분리, 일상가사업무로부터의 분리 때문에 집으로부터 소외감을 느낀다고 한다(Tognoli, 1979, 1980, 신혜경, 1991에서 재인용). 주거소비와 관련하여 여성들이 의사결정을 주도하게 됨은 여성취향의 주거, 남성의 심리적 접근을 방해하는 주거로의 변화를 더욱 촉진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한편 신혜경(1991)은 여성들이 실내장식이나 정원장식 등의 선택을 하는 것이 근본적인 결정은 미리 확립된 주택디자인이나 위치에 의할 수 밖에 없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즉 제한적인 의사결정권을 알 수 있다. 여성이 그들의 가치관과 삶의 의미를 반영할 가정환경을 만들어 갈 자유를 가진다해도 이러한 자유는 가부장제와 공공분야에서 의사결정권을 가진 사람들의 결정에서 나온 미리 정해진 영역 내에서의 자유라 할 수 있다.

하지만 여성들 자신이 가부장적 가족제도 하에서의 주종적 관계, 전통적 성역할태도를 지님으로써 그들이 의사결정을 내린다고 해도 여성들은 주거공간을 모든 가족원에게 바람직한 공간을 만들기보다는 가사노동량이나 가사노동 효율성의 측면 모두에서 자신을 더욱 가사노동에 구속시키는 의사결정을 내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남성에게 있어 가정은 그의 성이지만 여성의 경우 가정내에 자신을 위한 어떠한 개인적인 공간도 없는 경우가 자주 있다. 사회는 이상적인 가정을 따듯하며, 남성과 자녀를 지지해주는 공간으로 정의한다. 하지만 주부들에게 그것은 언제나 노동의 장소이며 왔으며 그곳에서는 여성

의 노동이 결코 끝나지 않는다. 여성들은 맛있는 음식을 요리하는 부엌, 재봉실 등을 가진다. 그리고 소위 주인침실에서조차 주부의 역할은 봉사하는 것이며 자율성과 프라이버시를 주장하지 못한다(Hayden, 1984).

둘째, 여성이 주 공간사용자인 부엌이 주거공간에서 중심적 위치를 차지한다는 점이다. 우리나라 일반 단독주택평면의 경우 1970년대와 1980년대 사이에 부엌이 외부에서 직접 접근 가능한 위치에서 점차 실내화하였다. 입식화 과정을 거치면서 식당, 다용도실 및 수납공간 등으로 이루어지는 '부엌군'을 형성하였다. 1980년대 부엌이 식당의 기능을 가지면서 평면의 중앙부에 위치, 거실과의 관계가 강화되어 입식화, 기능의 실내화, 여성공간의 중시에 따른 중앙부 배치 등 전통적인 주거문화의 유지를 견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정무용, 고인용, 1994).

가사노동이 더욱 강요적인 특성을 지니게 되는 측면이 있다. 부엌이 개방적 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가사노동 수행자의 자의적 시간계획에 따라 융통성을 가지기보다 즉시적으로 수행되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다. 부엌이 주택내부의 어떤 곳에 위치하느냐에 따라 가족원들이나 외부 손님에게 가시성이 달라진다. 본래의 목적은 가족원들로부터 고립되는 가사노동의 특성을 보완하거나 가사노동을 수행하면서도 자녀에 대한 감독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기능적 잇점을 얻고자 하는 데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주부만의 가사노동으로부터 가족원들과 가사노동을 분담할 수 있는 주거평면으로 이해되고 실천되지 못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주부들이 일을 미루지 못하고 치우지 않은 일들을 그대로 남에게 가족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도록 주부의 가정중심성을 통해 주부의 가사노동 부담을 가중시킨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거공간의 설계는 가사노동 수행에 부적합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조절행동은 주택개조를 하기보다는 주거이동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근 주택개조행위가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며, 이에 따라 주택개조에 관한 여러 연구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이선옥, 박두용(1995)의 연구에 의하면 전용면적 60.0-65.69m<sup>2</sup>의 아파트, 84.96-84.98m<sup>2</sup>

인 아파트 거주자 모두 주방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이 각각 36%, 35%로 거실을 늘리고 싶다는 응답 다음으로 높은 응답 비율을 나타내고 있다.

소규모 아파트에서 이루어지는 일반적인 주택 개조형태를 살펴보면 공간의 물리적 크기의 협소함에 대한 대응으로서 주로 서비스공간의 연결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 LDK로 통합되어 있는 평면구성에 대한 대응으로서 주로 리빙발코니, 서비스발코니 등의 서비스 공간의 연결부분에서 이루어지는 형태, 수납공간의 부족에 대한 대응으로 나타나는 형태 등(우동주, 윤도근, 1991; 김상희, 1993; 김영주, 1993) 작업공간에서의 주택개조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중대형 규모의 아파트에서는 소규모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주택개조 형태 외에 구조재 변경을 통한 면적 확장과 작업공간 변경이 많이 이루어진다(배시화, 1992).

일반적으로 아파트 실내공간 개조는 잠재적인 주택교환가치에 대한 기대감이나 내부공간의 장식적 욕구증가와 같은 요인이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좀 더 근본적인 이유로 주거 계획자의 계획의도와 주거 사용자 의 요구 사이의 불일치는 근본적이며 거주자의 관점에서 매우 중요한 개조이유가 될 수 있다(이우룡, 1989).

셋째, 부엌공간 기계화도 여성공간에서 나타나는 변화 중 하나이다. 그러나 작업공간의 기계화는 무엇을 위한 기계화인가? 가정기기를 판매하는 기업의 광고를 통해 그 진실을 파악할 수 있다.

“당신의 가족의 건강을 위해 .....음식을 맛있게 깨끗하게 보관하며..... 냄새없는 냉장고”

그리고 주부들은 기계를 닦고 기름기를 제거하는 일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야 하므로 거짓 효율성(pseudo efficiency)과 거짓 산업화가 실험실처럼 부엌을 거짓 과학으로 메꾸고 있다(Hayden, 1984).

시스템キッチン과 같은 가사노동 장소의 현대화, 과학화, 기계화의 경향은 주부의 가사노동을 감소시키기 보다 좀 더 가중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부엌가구의 수요에 대해 조사한 연구(윤복자 외, 1995)에 의하면 수납장은 현재 상하분리 수납장에서 키큰장으로 수요가 늘어날 전망이다. 작업대는 현재 프리스탠딩에서 앞으로는 빌트인 시스템을 선호할 것이고 가열대는 현재 버

너 2개 짜리의 일반가스렌지가 많이 이용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4개 이상의 버너를 갖춘 가스오븐레인을 선호할 것으로 예측하였다. 부엌가구에 대한 이러한 수요예측은 식생활 영역에서 냉동식품, 반조리식품의 이용이 증가하며, 외식의 빈도나 외식으로 지출하는 생활비 지출이 매우 급격히 증가하고 있음을 우려하는 현상과는 모순되고 있다. 즉 가사노동 사회화에 대한 지향성은 크면서도 부엌설비는 대형화, 고급화의 경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거설비의 유지관리를 위한 가사노동 요구량을 증가시키는 것이다.

네째, 실내장식의 주 의사결정자인 주부들이 주거공간을 기능적 공간으로보다 장식적인 공간으로 만드는 경향이 있다. 주생활양식에 대해 조사한 연구(박영순 외, 1994)에 의하면 주부의 연령별, 거주평형별 분석을 하고 있지만 총 응답자 중 정리정돈형이 5.8%, 실용추구형이 0.7%인데 비해 장식추구형이 48.7%, 유행추구형이 25.7%, 자기표현형이 19.1%로 조사대상 주부들의 93.5%가 실내를 장식적으로 꾸미므로써 이를 유지관리하는데 가사노동을 요구하게 되는 주생활양식을 나타내고 있다.

이는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를 발생시키므로써 주부의 노동부담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자녀의 신체적, 정서적 발달에 장애가 되기도 한다. 실내를 깨끗하게 꾸미고, 여러 가지 장식품을 놓은 실내에서 어린이들의 움직임은 어머니로부터 제제를 받거나 스스로 움츠러들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주생활양식에 대해 다룬 심미영 외(1996)의 연구를 참고로 살펴보면 주생활양식은 내부기능성이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장식추구, 과시성의 순으로 나타났고 자기표현이나 실용성은 낮은 점수를 나타냈다. 특히 장식추구의 생활양식은 20대의 젊은 주부들이 다른 연령 집단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장식적인 주거공간으로의 변화가 더욱 커질 것이라는 예측을 하게 한다.

또한 이같은 실내공간의 장식화는 남편이나 다른 가족원들과의 가사노동분담을 더욱 어렵게 할 것이다. 미적 감각과 생활의 여유를 즐길 수 있음을 표현한 주거공간은 주거와 관련된 가사노동의 표준을 더욱 상승시킨다. 때문에 남편, 다른 가족원들은 그러한 높은 수행표준에 이르지 못할 것이 분명하므로 가사노동에 참여하고

자 하는 생각조차 갖지 않을 것이다.

#### 4. 행복한 가정, 즐거운(?) 가사노동

작업자인 주부들은 새로운 변화에서 주어지는 기능들을 수행하면서 또한 여전히 전통적 가치를 따라야 하는 갈등이 있다. 전통적인 생활관이나 가족관에 의한 생활양식이 변화하고 있거나 가족체계를 사회의 안전장치로 기능케(이지현 역, 1990) 하기 위해 가사노동을 기꺼이 수행하고 그 결과 행복해보이는 가정을 꾸려야 할 의무를 진다.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있는 주부들은 과연 가사노동에 대해 어떤 태도나 이미지를 갖고 있는가? 직업노동자들의 경우는 그들이 자신의 직업을 좋아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는다. 만약 잠깐이라도 직업을 좋아한다면 행복한 사람인 것으로 여겨진다. 반면 주부들은 가사노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인정하지 말도록 굉장한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가정주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을 살펴보면(Oakely, 1974) 가사노동(14), 단조로움/반복성/지루함(14), 계속되는 가정내 책임(6), 고립/외로움(4) 등을 들고 있다.

표 1. "가정주부가 된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 가장 나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가장 나쁜 것	빈도
가사노동	14
단조로움/반복성/지루함	14
계속되는 가정내 책임	6
고립/외로움	4
가사노동을 해야만 한다	3
구속적이다	3
자녀	2
기타	2
합계	48

\* 출처, 문숙재 역, 가사노동의 사회학(1974), 48쪽

이처럼 여성들은 가정주부가 되므로써 가사노동을 해야 하는 것을 나쁜 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한편으로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표준을 설정하여 집안이 깨끗하고 정돈되어 보이기를 원하며 가사노동의 결과 설정한 표준에 도달했을 때 만족감을 얻는다. 가사노동은 주부들이 싫어하는 노동이지만 또한 가사노동의 결과는 주부들의 만족의 원천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주부는 완벽주의자가 되지 않고서는 표준에 도달하기 어렵기 때문에(Oakley, 1974), 끊임없이 가사노동에 매달리면서도 표준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의 불만족 상태에 빠지게 되어 다시 가사노동에 매달리게 되는 순환구조에 들게 된다(박연주, 1995).

문제는 여성공간에서 나타나고 있는 변화들이 이러한 가사노동의 부정적인 측면을 강화시킨다는 점이다.

최근 주생활양식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실내장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내장식은 활동 자체로 볼 때 창조적인 일이며 주부들 자신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는 다른 한편으로 주부들이 가사노동의 특성 중 싫어하는 특성인 단조로움과 반복적인 쓸고 닦는 가사노동을 가중시키게 된다. 또 주부들이 가사노동을 혼자서 고립된 상태로 해야 하는 일로서의 특징을 전혀 개선시키지 못한다.

#### 5. 문헌에 나타난 여성을 위한 주거대안

1870년에서 1930년 사이에 가사노동(domestic)을 개혁하기 위한 3가지 중요한 전략이 제시되었다. Catharine Beecher의 안식처 전략, 막스주의자들의 산업화 전략, 물질적 여성주의자들의 근린전략 등이 그것이다(Hayden, 1984). Beecher는 그녀의 The American Woman's Home(1869)이라는 책에서 가정을 남편과 자녀를 돌보기 위한 여성의 가사노동을 위한 공간으로 가정하였다(Hayden, 1984). 좀 더 나은 디자인에 의해 이전의 고된 일로부터 해방된 주부는 언제나 맛있는 pie를 만드는 사람이며 보다 나은 반죽을 만드는 작업대와 밀가

루 저장통으로 새로이 설비되며, 그래서 남편에게 정서적인 지원을 하고, 자녀를 격려해주는 어머니가 되는 노동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게 된다. 자기-희생은 그녀의 가장 큰 미덕이 될 것이다. 가정은 산업적 자본주의 사회의 경쟁과 착취로부터 영혼적, 물리적인 피난처이며 젊은이의 훈련장소로서 매정한 세계에서 안식처가 될 것이다. Beecher는 이러한 남성과 여성 사이의 노동분담이 산업사회가 남성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시킬 것이라고 믿었다. 그녀는 궁극적으로 남성들이 농업생산이나 산업생산에 참여하는 것과 대등하게 여성들이 가정생활공간에 대해 통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인종이나 계층과 관계없이 모든 여성들이 가사노동에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도록 하자고 주장하였다. 그녀는 새로이 미국 여성들을 '가정장관'(minister of home)이라든지 '진정한 직업인(true professional)'이라는 개념으로 설정하였다(Hayden, 1984).

산업화 전략은 독일 막시스트인 August Bebel이 그의 고전적인 저서 Women Under Socialism(1883)에서 언급하였다. 이는 여성들의 가사 영역을 완전히 없애고 대부분의 전통적인 가사노동을 공장으로 이전하자는 것이다. 공장형 부엌에서 식사를 준비하고 대규모 빵공장에서 파이를 굽고, 대형 세탁기가 세탁을 하며 도시는 중앙난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묘사하였다. 어린이들은 어릴 때부터 공공시설에서 교육을 받을 것이며 여성들은 가정 밖에서 산업고용되고 가정은 많은 사적인 활동에 대한 통제를 하지 않게 될 것이라 하였다. 그 결과 여성들은 남성과 손익을 공유하게 될 것이라 하였다. Bebel이 보기에 가정생활은 자연적인 힘과 생물이 사라지고 산업적인 효율성이 선호된다. Bebel은 양육하는 일은 여성들이 해야한다고 생각하지만 교환가능한 서비스 노동자로서 일을 해야 한다고 믿었다. Beecher의 중심적 생각이었던 것은 여성들이 개인적인 손길로 양육을 해야 하는 가장장적 요구를 산업화 전략에서는 어떠한 탁아 서비스 노동자도 어머니의 사랑을 대신할 수 있으며 어떠한 식당 노동자도 가정에서 만든 음식의 대체물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이같이 상호교환가능한 산업적인 보호기능의 제공은 산업적인 요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

규모 식사실, 레크리에이션 클럽, 탁아 공간 등을 지닌 아파트 주거 그리고 부엌없는 아파트의 형태의 공간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안식처 전략과 산업화 전략의 중간적인 것이 물질적 여성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전략이다. 이는 Pierce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 근린의 관계망을 통해 여성들의 통제하에 가사노동을 사회화하는 방법이다.

안식처 전략에서는 여성의 전통적인 기술을 높이 평가하지만 금전적 대가는 거부하며, 산업화전략은 여성들의 전통적인 기술을 거부하지만 여성에게 임금을 지급할 것을 주장한다. 반면 물질적 여성주의자들은 여성들이 이미 해오고 있는 노동에 대해 대가를 지불해야만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Pierce가 제시한 대안은 생산자 공동체를 만들어 모든 요리, 빵굽기, 세탁, 재봉 등을 하나의 기술적으로 설비가 잘 되어 있는 근린내 작업장에서 수행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이를 통해 그는 안식처 전략이 갖는 고립과 경제적 의존성을 극복하고 산업화 전략이 갖는 소외를 극복하려고 하였다. 여성영역의 물질적 기초가 되는 여성들의 전통적 가사노동과 근린관계망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Pierce는 이러한 기술과 관계망을 여러개의 가정을 결합하여 보호와 양육의 기능을 상승시켜 여성에게 새로운 종류의 경제적 힘으로 전환시키자고 주장하였다(Hayden, 1984).

건축적 여성주의자로 일컬어지는 Charlotte Perkins Gilman(Allen, 1988)은 가정은 다른 사회적 발전과는 달리 진화되지 않은채 있으며, 그러한 가정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첫째 가장 큰 손실로서 생산적 노동력인 여성의 노동력을 낭비하고 있으며 둘째, 개별적으로 운영되는 가정생활로 인해 시간, 노력, 금전적인 낭비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였다. 셋째, 또한 기존의 가정은 비전문적인 의, 식, 주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므로써 비위생적, 비효율적이라 주장하였다. 특히 그녀는 주택설계에서 가장 큰 문제점으로 음식-관련 과정을 지적하면서 부엌 없는 집이라 불리우는 가정체계를 제안하였다.

Pierce와 그의 추종자들은 주부공동체를 포함하는 새로운 형태의 근린조직과 부엌없는 주택, 탁아시설, 공동부엌과 지역사회 식사클럽들

을 포함하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주택형태를 실험하였다. 가사노동에 대한 재정의, 그리고 여성과 그들 가족의 주거욕구를 재정의하므로써 그들은 건축가들과 도시계획가들이 가족생활의 공간적 배경으로서의 주거디자인을 고려토록 촉구하였다. 물질주의 여성주의자들은 아파트먼트 호텔과 새로운 공동체 내에서의 가사공간이 가사의 혁명을 촉진하였다고 생각하였다.

## 6. 바람직한 주거공간개선의 방향

이상에서 살펴 본 내용을 바탕으로 여성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는 가사노동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주거대안에 대해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Beecher가 제시하는 안식처 전략은 현대사회의 사회경제적 여건을 고려할 때 몇가지 부적합한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여성들이 가사노동을 전담하고 이에 대한 통제력을 강화시키므로써 남성지배적인 시장경제와의 균형을 취하는 것은 이제 변화된 경제 상황 때문에 - 자본주의 사회에서 맞벌이 가정이 홀벌이 가정보다 더 큰 구매력을 가지며 독신자들이 부부가정보다 더 큰 구매력을 갖는 상황 -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는 것 같다(Darke, 1994). 또한 여전히 사회적 가치기준은 가사노동과 같이 가정복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노동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하기 보다 시장노동의 댓가인 물질적 보상, 사회적 성취가 여전히 높은 가치기준이 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들에게 더이상 오로지 가정만을 안기우는 것은 모든 가족원들의 복지를 목표로 하는 가정학의 목표와도 상치된다.

산업화전략을 택한 구소련에서는 국가에서 보조하는 탁아시설과 여성의 산업생산참여를 강조해왔다. 가사노동의 시장상품대체라는 가사노동 사회화 전략을 택한 미국은 상업적인 탁아시설과 여성들이 기구와 상업적 서비스를 소비하는 것을 강조해왔다. 두 문화 모두에서 기혼여성의 대부분은 두가지 직업을 가지며 남성보다 주당 17-21시간 더일하며 남성이 버는 것의 약 60% 정도의 소득을 벌고 있다. 구소련에서의 '새로운 생활방식(new way of life)'이나 미국에서의 '새로운 여성(new woman)' 모두

성공적이지 못했다.

물질주의 여성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근린관계망에 기초한 부업없는 주택, 탁아시설을 포함하는 새로운 공동체로의 시도는 우리의 가족 및 주생활 관습이나 전통적 가치에 비추어 볼 때 쉽사리 택할 수 있는 대안은 아니다.

아파트 외부공간 수요에 대해 조사한 김한수, 김재익(1995)의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아파트 주민 공동의 탁아소시설에 대해 비용부담의사가 있는 가구는 영유아가 있는 가정의 경우 67% 이나 영유아가 없는 가정은 24.5%의 응답비율을 보이고 있어 가정이 지닌 조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공동시설을 설치할 경우 전용면적을 양보하겠느냐에 대한 질문에 공부방은 28.4%가 긍정적인 답을 한 반면 공동세탁실은 5.7%만이 긍정적인 답을 하고 있어 가사노동을 가정밖의 공동 작업장으로 이끌어내는다는 실제적인 시설이용은 물론 아직 의식수준에서조차 많은 문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개별 가족단위를 분리시키고 있는 대부분의 주거형태는 가족구성원들에게 최소한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며 여성들에게 가사노동을 최대화한다(McDowell, 1983)고 하지만 다양한 가치, 다양한 생활방식을 지향하는 현대사회에서 이러한 주거대안을 모든 가정에 적용하는 것 역시 바람직하지 못할 것이다.

개별 가정단위로 가사노동을 해결하는 경우, 어떤 형태의 주택을 설계하든 가사노동에 대해 편리한 효율적인이라는 관점에서의 접근만으로는 부족하다. 즉 가사노동은 여성의 노동이며, 가사노동이 수행되는 공간은 여성의 공간이라는 관점을 버려야 할 것이다. 그리고 안식처 전략이든, 산업화 전략이든, 또는 근린 공동체 전략이든 가사노동은 인간생활에 필수적인 노동이며 생활문화를 축적시키는 중요한 노동임을 인식하고 여성이 아니라 가족원들이 이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하고 의사결정하는 가정문화가 필요할 것이다.

물론 새로운 형태의 주거로 변화시키는 혁신적이며 평등지향적인 주거는 전통적인 가족이 새로이 바뀌고 가사노동의 성별분업이 재구성되지 않고는 개발될 수 없다(Hayden, 1984). 그러나 문제는 가사노동은 집과 같은 사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여성의 일이라는 사회규범, 그

리고 이러한 규범이 남성은 물론 여성들에게도 강하게 내면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때문에 가사노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여성취업으로 여성들의 역할은 과중되어가고 있지만 가사노동에 관한 전통적인 역할분담이 전혀 개선되고 있지 않음이 여러 선행연구에서 경험적으로 증명되고 있다.

성별에 따라 공간이 사적공간과 공적공간으로 구분되며 공적공간에서 여성이 안락함을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없음을 지적하곤 한다. Wekerle (1981)는 여성의 공공장소의 이용 및 공공시설물 이용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적은 것을 지적한다. 즉 그들이 공공장소를 이용할 때 어떤 메시지가 그들에게 있으면 안 될 장소, 적절한 장소로 느끼게 하며, 여성의 경험을 어떻게 반영하는 장소라야 그들이 공공장소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이를 반대로 가사노동의 장소로서 주택에 적용시켜야 할 것이다. 즉 어떤 메시지가 주택내 공간에서 남성으로 하여금 있어야 할 적절한 장소로 느끼게 할 것인지를 다루어야 할 것이다.

한편 최근들어 새로운 공동체적 생활방식을 지향하는 움직임이 자녀양육 부분에서 미미하나마 보여지고 있다. 부모들이 직접 출자금을 내고 경영을 맡아하는 '공동육아 협동조합'(중앙일보, 96년 11월 1일자)의 운영이 그것이다. 물론 이것은 육아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고 공동의 교육철학을 가진 사람들끼리의 조직이지만 개별 가정 단위의 자녀양육에서 공동장소에서의 육아가 실천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사노동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변화를 시도하려는 움직임이 극히 미미하다. 좀 더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많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여성 전담의 가사노동을 감축하고 이들에게 자유로운 시간사용이 가능하도록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대안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세가지 유형의 가정 모델은 각기 장단점을 지니고 있으며 또한 가정마다 지니고 있는 자원이나 주어진 환경조건, 개인적인 선호 등에 따라 어느 하나의 가정모델을 이상적인 해결방안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취업주부가정, 전업주부가정, 저소득 가정, 고소득 가정, 부부가족, 편부모 가정 등 다양한 조

건과 취향에 따라 각기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다양하게 마련해 주는 것이 잠정적으로 바람직한 해결방안이라 생각된다.

성공적인 해결방법은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이 사회에 중요한 일이라는 점을 평가해주고 이웃, 친척, 친구들 사이에 이루어진 기존의 관계망 기초 위에 남성들이 가정일에 책임을 함께하여 가정일에 대한 개인적인 선호와 민족적인 관습이 존중되도록 하고 새로운 기술을 받아들여 좀 더 보호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의 평등이 증진되도록 하는 것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는 없었으나 이전의 시도들이 실패케 했던 지금까지의 경제적 공간적 실패를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대해 Hayden은 이러한 실패가 여성들로 하여금 직업노동과 가사노동의 이중노동으로 경제적인 피해를 당하게 하고 있으며 디자이너들과 설계자들이 가정을 작업장으로서 다루기를 거부하는 것에 따라 공간적으로 조작되고 있다는 지적을 다시한번 상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 참 고 문 헌

- 김상희(1993), "아파트 평면유형별 거주후 평가 및 공간조절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9권 8호, 59-67.
- 김영주, 윤복자(1994), "아파트 거주자의 주거 이미지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권 8호.
- 김한수, 김재익(1995), "아파트 내외부공간 수요패턴의 분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11호, 111-121.
- 박언주(1995), "가사노동을 둘러싼 부부갈등에 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영순, 신인호 외 2인(1994), "도시 아파트 거주자의 주생활양식과 실내분위기선호 연구", 한국주거학회지, 5권 1호, 17-28.
- 배시화(1992), "중,대형 아파트 내부공간의 통시적인 변화와 공식적인 변경을 통해서 본 설계방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 신혜경(1991), "여성학적인 접근방법으로 본 도시주거 환경의 문제점에 관한 연구",



-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심미영, 고경필(1996), "주생활양식이 주택구매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분석", 대한가정학회지, 34권 2호, pp.341-354.
- 우동주, 윤도근(1991), "아파트 공간 변용면으로 본 거주자의 생활행태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7권 1호.
- 이우룡(1989), "올림픽 선수촌, 기자촌 아파트 내부개조 사례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앤 오클리 지음, 문숙재 역(1990), *가사노동의 사회학*, 신광출판사.
- 유영주(1995), 가족문화 및 이웃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의 중요성과 주민공유공간의 함의,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삼성건설(주).
- 윤복자, 윤정숙 외 4인(1995), "서울시 거주자의 사회계층에 따른 부엌가구의 수요 예측", 대한가정학회지, 33권 2호, 187-195.
- 이경희(1996), 주거문화와 여성, 생활문화에 대한 여성학적 고찰, 한국여성학회.
- 이기춘, 이은영, 이기영 외 3인(1989), "산업사회의 소비자행태 연구 - 서울시 가계의 의, 식, 주생활 관련 상품대체와 구매행동을 중심으로 -", 대한가정학회지 27권 2호, 115-132.
- 이선옥, 박두용(1995), "대도시 집합주택 거주자의 주거공간 구성규범에 관한 연구 -3LDK 평면구성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1권 11호, 133-142.
- 이연숙(1995), "공동체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한국의 미래주택 개발방향",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 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삼성건설(주).
- 이지현 역(1990), 데니스 하트 저, "한국주부: 시장경제체제하에서 변화하는 여성의 사회적 역할", 여성연구 28, pp. 154-176.
- 임창복(1995), 주민공유공간이 도시 공간과 주택 발전에 미치는 효과,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삼성건설(주).
- 정무웅, 고인용(1994), "주거문화적 배경에서 본 주거의 특성 및 변화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10권 10호, 73-87.
- 최재필(1995), 한국주거에서의 주민공유공간의 변화와 미래대응 방안, 21세기 공동체 생활문화육성을 위한 다학제적 접근, 연세대학교 생활과학연구소/삼성건설(주)
- 한국건설기술연구원(1991), "주생활 변화에 대응한 공동주택 개발".
- Allen, Poly Wynn(1988), *Building Domestic Liberty*, The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Amherst.
- Darke, Jane(1994), "Women and the Meaning of Home", in Rose Gilroy and Roberta Woods Ed. *Housing women*, Routledge, London and New York.
- Dolores Hayden (1984), *Redesigning the American Dream: the Future of Housing, Work, and Family Life*, W. W. Norton & Company Inc., New York.
- McDowell L.(1983), "City and Home", in Mary Evans and Clare Ungerson(ed)(1983), *Sexual Divisions: Patterns and Processes*, Tavistock Publications, London and New York.
- Walker, K. E. and M. E. Woods(1976), *Time Use: A Measure of Household Production of Family Goods and Services*, Washington : Center for the Family of the American Home Economics Association.